

합성수지 운송비용 상승 불가피

화물연대 파업 6월29일 종료 ... 컨테이너 운송요금 9.9% 인상

6월25일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이 5일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6월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인상 최종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률 67%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협의회와 운송료 9.9% 인상에 잠정 합의하고 6월2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부별 찬반투표를 벌였다.



화물연대와 협의회는 6월27일 1차 운송료 교섭을 시작했고 28일 오후부터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1차협상에서 3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2차협상에서 23%로 낮추었고, 협의회는 1차에서 4-5%를 제시한 후 2차에서 6%로 높였다.

이후 협의회는 한자릿수 인상안을 고수하고 화물연대는 두자릿수를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화물연대가 9.9% 인상안을 잠정 수용하며 타결의 물꼬를 텄다.

화물연대는 업무복귀 발표문에서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운송 시장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전사회적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화물운송 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적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며 “운송업계와의 교섭을 통해 타결된 운송료 인상 역시 화물운송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앞으로 법제도 개선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입법화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새누리당 역시 표준운임제 요구를 조속히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2>